

한·중·일 전자부품 통합검색시스템 본격 개시 운영

한중일 전자부품 성능·사양, 온라인에서 한눈에 비교

문의 | 산업자원부 디지털융합팀 (02-2110-5674)

- 전자업체들은 오는 11. 28(수)일부터 한·중·일 전자부품의 성능과 사양, 부품업체 정보까지 온라인상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.
- 산업자원부는 지난 '04. 7월 한·일 전자부품 통합검색시스템 구축에 이어, 한·중간 전자부품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MOU를 체결함으로써 한·중·일 3개국 전자부품 통합검색시스템을 완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.
 - ◎ 한·중 전자부품 통합검색시스템 구축은 '06. 3월 산업자원부와 중국의 신식산업부 지원 하에 한국 전자산업진흥회와 중국 전자과학기술정보연구소가 1년 6개월여간 추진해 왔으며
 - 11. 28(수) 웨라톤 워커히 호텔에서 시스템 운영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, 「한·중 전자부품 통합검색시스템 Open행사」를 개최한다.
 - ◎ 한편 한·일간 전자부품 통합검색시스템은 '01.7월 한국 전자산업진흥회와 일본 전자정보기술협회가 추진을 시작하여 지난 '04.7월부터 서비스가 개시되었다.
 - '04년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 이후 회원 가입 인원 및 접속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.
- 금번 DB 구축으로 우리 업체들은 On-line상에서 방대한 양의 부품 정보를 쉽고 효율적으로 비교·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.
 - ◎ 현재 한국 310여개 업체, 120만건의 전자부품 정보, 일본 52개 업체, 65만건의 전자부품 정보, 중국 160여개 업체, 10만여건의 전자부품 정보가 구축되어 있다.
- 또한 e-Biz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전자업계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고, 한·중·일 3국 간의 국제 협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.
 - ◎ 우선 전자부품업체는 사이버 마케팅 채널 확보로 Global 고객 발굴 및 신규 거래 확보를 통해 매출 증대를 꾀할 수 있고, 제품 생산업체들은 실시간 고품질, 저가격의 부품 소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.
 - ◎ 나아가 3국의 전자부품 생산 세계시장 점유율이 43.2%인 점을 감안할 때, 한·중·일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하여 세계 표준화 움직임 등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의 공동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.
-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On-line 상의 정보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한·중·일 전자부품 Sales Fair를 개최하여 On-Off Line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동북아 전자부품 통합검색시스템(www.epartshub.com)을 핵심 전자부품 공급의 허브로 만들 예정이다.

태양광 국제상호인증제도 도입추진

국제인증체계 도입으로, 태양광발전산업 국제경쟁력 확대

문의 | 산업자원부 에너지물류표준팀 (02-509-7270)

-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태양광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우수한 국산 제품개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, 태양광 국제인증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. 태양광 국제상호인증(IECEE PV)의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으로 에너지관리공단 및 산업기술시험원,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지난 9월 가입신청을 하여 내년2월에 국제심사단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.

※ 태양광 국제상호인증(IECEE PV : IEC System for Conformit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Electrical Equipment Photovoltaic)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(IEC)에서 2004. 1부터 시행

- 국내태양광설비 인증제도는 국제상호인증제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'05년부터 인증기준을 국제기준과 부합화 시켜왔으며, 가입이 예상되는 시점인 내년 5월 이후에는 완전하게 부합화 될 것이다.
- 태양광 국제상호인증제도도 개별국가별로 운영하는 인증제도의 평가기준 및 절차의 차이를 통일하여 회원국 상호인증제도를 구축하여, 한 국가에서 인증받은 제품은 다른나라의 인증을 면제하는 제도이다. 현재는 독일, 일본 등 8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'04년부터 시작되었다.
- 태양광발전분야는 세계시장규모가 2005년에 124억달러(생산량 1.8 GWp)에서 2010년에는 약 720억달러(생산량 10 GWp)로 연평균 30%이상 성장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. EU, 일본 및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, 이들 국가가 전 세계시장의 약 90%를 장악하고 있다.
-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선진국의 70% 정도이며, 생산량도 선진국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이나 최근 생산이 급증하여 현재 국내수요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. 본 국제인증에 따라 국제표준에 따른 성능평가 및 인증을 획득한다면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.
- 현재 태양광설비 설치기준에는 수입제품에 한정하여 국제상호인증제품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이번 태양광인증제도의 국제화를 계기로 2008년 하반기 부터는 국내제품도 본 인증제도에 의한 인증취득이 사실상 의무화될 예정이다.

포스코 포항제철소 345kV 변전소 준공

친환경 제철신기술 안정적 전력공급 기반 마련

문의 |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 (02-2110-5476)

- (주)포스코(사장 정준양)는 산업자원부, (주)효성, (주)대우건설 등 설비 공급사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, 12.14(금) 포항제철소내 신설 변전소에서 『포항제철소 345kV 변전소 준공 행사』를 개최하였다.
- (주)포스코는 이번 345kV 변전소 준공으로 세계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친환경 제철신기술인 파이넥스(FINEX) 설비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연산 150만톤까지 생산량을 늘리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.
- 포항제철소 345kV 변전소는 기존의 154kV 설비가 345kV로 변경되는 사업으로서 (주)효성이 기자재 공급, (주)대우건설·(주)포스코건설이 시공, 벽산엔지니어링(주)이 감리를 담당하였으며 2005년 10월에 착공된 이후 총 공사비 1,275억원이 투입되어 2년 2개월만에 완공되었다.
- (주)포스코는 간편하고 환경친화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포스코 변전소를 신설하였고, 경제적 투자를 위해 기존의 전선보다 가볍고 단위면적당 전력을 2배까지 송전할 수 있는 최신 전선으로 교체하였다.
- 본 사업의 완료로 포항제철소는 기존의 1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용량 300MW 보다 4배나 많은 용량인 1,200MW까지 전력을 충분히 공급받게 됨으로써 철강사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내 철강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.
- 참고로 (주)포스코가 전세계 최초로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을 위해 직접 개발한 파이넥스 공법은 매장량이 풍부하고 값싼 가루 형태의 철광석과 석탄을 찌고 굽는 사전 처리과정 없이 바로 사용하여 씻물을 제조하기 때문에 각종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.
 - 기존의 용광로 공법의 경우 철광석은 찌서 '소결광'이란 덩어리를 만들고, 석탄은 구워서 '코크스'란 덩어리로 만들어 함께 넣으면 돌 사이 공간이 많아 철광석이 잘 녹게 되지만, 이런 과정이 비용부담을 크게 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늘리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었다.

업종별 추진실적 점검 및 산업계 CEO 간담회 개최 국내최초,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공인!

문의 | 산업자원부 에너지환경팀 (02-2110-5429)

- 탄소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이 국내 최초로 인정되었다.
- ◎ 산업자원부는 29일 김영주 장관 주재로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기후변화 대응 업종별 대책반 추진실적 점검 및 산업계 CEO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- ◎ 동 회의에서 올 한 해 동안 10개 에너지다소비 업종들이 추진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성과들을 발표하고,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감축실적 인증서를 공식 발급하였다

- 글로벌 이슈로 급부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발전, 정유, 철강 등 10개 업종 협회는 업종별 배출량 산정 및 등록을 추진하고 자발적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잠재량 분석을 수행하였으며
- ◎ LG화학, SK에너지, 기아자동차 등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·등록하여 민간 전문기관의 검증까지 완료하고,
- ◎ SK, LG 등은 정부와 체결한 MOU를 통해 사내배출권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.

- 향후 업종 협회들은 업종간, 산업간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감축 이행에 적극 협력하고
- ◎ 기업들은 탄소 저배출형 설비 도입과 공정개선으로 감축사업 등록을 확대하는 한편, 저탄소 제품 등 기후변화 대응 우수제품 개발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
- ◎ 아울러, 산업계의 지속가능 발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 업종별 여건들을 반영하여 기후변화 정책을 마련하고, 감축사업과 CDM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을 요청하였다.

-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“상시 운영되는 업종별 대책반을 통해 업계의 특성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감축정책을 수립하겠다”고 말하고,
- ◎ “향후 기업들의 자발적 감축노력 활성화를 위해 감축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CDM사업 발굴을 위한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강조하였다.

- 동 회의에 앞서 산업자원부 장관은 GS파워, 한화석유화학, 한국서부발전 등 18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감축실적 인증서를 발급하였다.

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로조명기준 KS개정

앞으로, 도로 조명환경 훨씬 쾌적해진다

문의 | 산업자원부 전기전자표준팀 (02-509-7294~7)

- 앞으로 가로등이 전력 소비량은 적은 대신 사물을 더욱 밝게 볼 수 있도록 도로조명 국가규격이 바뀔에 따라 야간 도로환경이 쾌적해지고 야간 운전자에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- ◎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기존에는 도로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도로에 동일한 밝기 기준을 적용하던 도로조명기준을, 도로의 종류, 교통량, 도로시설, 주변의 밝기 등 도로의 형태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밝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로조명기준(KS A 3710)을 개정하였다.

도로별 조명밝기 차등 적용

도로의 종류	교 통 량 주변환경 복잡도	평균노면휘도(cd/m ²) (최소허용치)
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	상	2.0 (2.0)
	중	1.5 (2.0)
	하	1.0 (2.0)
국도간선도로	상	1.5 (2.0)
	하	1.0 (2.0)
주택지역 접근도로	상	0.75 (2.0)
	하	0.5 (1.0)

※ () : 개정전의 값
 ※ 휘도 : 단위면적당 밝기의 정도

- ◎ 또한 조명 때문에 운전자가 받는 눈부심을 줄이기 위해 조명기구에서의 장해광을 억제할 수 있도록 조명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야간 교통사고를 줄이고 도시 미관을 쾌적하게 가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심야전력 등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 개선

지식서비스산업 등 일반용 요금 인하, 심야전력 및 산업용 인상

문의 | 산업자원부 전기소비자보호팀 (02-2110-5544)

- 산업자원부는 전체 전기요금수준은 동결하되, 그간 문제가 되어온 심야전력제도의 개선과 산업용과 일반용간 전기요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체계를 조정하여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함
 - 적정요금의 60%에도 못 미치는 심야전력요금은 17.5%를 인상하여 수요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,
 - 적정요금보다 낮은 산업용은 1% 인상하고, 적정요금보다 비싼 일반용을 3.2% (지식서비스산업 13.8%) 인하함
- 금번 조치는 과도한 심야전력 수요를 억제하여 국가적인 에너지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개선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- 한편, 최근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내년초 한전의 2007년도 결산실적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

< 심야전력제도 개선대책 >

- 심야전력제도는 심야시간대(23:00-09:00) 원자력·석탄 발전소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'85년 도입하였으나, 최근 고유가로 수유가 급증하여 발전원가가 비싼 LNG 발전기까지 가동
- * '06년 심야전력 수요는 8,960MW로 적정규모인 4,720MW의 2배 수준